



금융감독원

보 도 자 료



금융은 튼튼하게 소비자는 행복하게

보도	2024.11.18.(월) 조간	배포	2024.11.15.(금)		
담당부서	국제업무국(금융중심지지원센터)	책임자	국 장	박시문	(02-3145-7890)
	국제협력팀	담당자	팀 장	박은혜	(02-3145-7892)

금감원장, 동아시아 3개국 금융감독기구 최고위급 예방 등 결과

- ◆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베트남, 홍콩, 인도네시아 등 동아시아 주요 3개국 금융감독기구 수장 등을 예방하여,
 - 공매도 규제, 지속가능금융 등 공통 감독현안에 대한 공조의 기반을 확고히 하는 한편,
 - 금융회사의 진출·영업확대 수요가 가장 큰 지역인 만큼 현지 감독 기구에 한국 금융회사에 대한 관심과 지원을 요청하였음
- ◆ 팜 쩡 중(Pham Quang Dzong) 베트남 중앙은행 부총재(11.11.)와 현지 진출 국내 금융회사들이 양국간 경제협력·교역에 기여할 수 있는 기반 마련을 위해 상호협력을 강화하기로 뜻을 같이 하였음
- ◆ 줄리아 룡(Julia Leung) 홍콩 증권선물위원회 CEO(11.14.)와 공매도 규제 경험 공유, 韓 공매도 조사 지원 등 감독공조의 토대를 공고히 하였고,
 - 아더 유엔(Arthur Yuen) 홍콩 금융관리국 부총재(11.14.)와는 美 대선 이후 글로벌 규제방향에 대해 논의하고, 지속가능금융, 바젤Ⅲ 등 글로벌 감독 과제를 일관성있게 이행하고자 '25.1분기에 감독협력 워크숍 추진을 협의
- ◆ 마헨드라 시레가(Mahendra Siregar) 인도네시아 금융감독청 청장(11.15.)과 '23.5월 인도네시아 방문에 이어 최고위급 면담을 다시 실시하여 양기관간 각별한 우호관계 및 상호협력 의지를 재확인
 - 국내 금융회사의 현지진출이 확대되는 가운데, 내부통제 및 리스크 관리 역량 강화를 유도하여 현지 금융산업의 책임있는 일원이 되게 하려는 한국 금융당국의 감독현황 및 의지를 전달하였고,
 - 양국 당국 및 금융업계가 소통하기 위한 韓-인니 금융감독포럼(가칭)을 내년 상반기중 실시하기로 합의하는 등
 - 전년도에 양국 수교 50주년을 맞아 더욱 공고해진 금융협력을 계속 굳건히 하기로 뜻을 같이 하였음

- 이복현 원장은 11.11.(월), 베트남 하노이에서 은행 등 신용기관 감독·검사 및 인허가를 담당하는 팜 쩡 중(Pham Quang Dzong) 베트남 중앙은행 부총재와 면담을 실시
- 이복현 원장은 국내 은행들의 베트남 현지 영업에 대한 베트남 중앙은행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에 감사의 뜻을 전달하였음
 - 또한, 현재 진행중이거나 유보중인 국내 은행들의 현지인가에 대한 베트남 중앙은행의 관심을 요청하는 한편,
 - 금감원도 국내 은행들이 현지 법규를 충실히 준수하고 베트남 경제·금융산업 성장에 기여하도록 뒷받침하겠다고 약속
 - 팜 쩡 중 부총재는 양국간 경제협력·교역이 지속 발전하는데 있어 현지 진출 국내 은행들의 기여도를 높이 평가하고, 양국 감독당국간 긴밀한 협력이 그 기반이 될 수 있었다고 화답
 - 아울러, 이복현 원장은 베트남 중앙은행의 주요 과제인 은행 산업 구조개편*과 관련해 '97년 금융위기를 성공적으로 극복한 한국의 경험을 공유
 - * '22년부터 은행업 구조개편을 위한 5개년 전략을 시행중으로, '24.7월부터 개정 신용기관법을 시행하여 부실은행에 대한 중앙은행의 정리 권한이 강화
 - 팜 쩡 중 부총재는 베트남 은행산업 구조개편 과정에서 감독경험 공유 등 양 기관간 긴밀한 협력에 대한 기대를 표명
 - 이에 양 수장은 은행감독협력 양해각서 체결,* 금감원 하노이 사무소 설치('13년), 활발한 감독연수·협력 등 그간의 성공적 협력 관계를 더욱 공고히 하기로 합의하였으며,
 - * 양국 은행감독 협력의 기본 토대 마련을 위해 '06년 체결한 후, 인허가 관련 정보 협조, 해외점포 임점검사 관련 협력·정보공유 등 협력범위 확대를 위해 '19년 개정
 - 특히, 이복현 원장은 인도네시아 금융감독청과 성공적으로 운영중인 상호파견 연수제도*를 소개하는 등 향후 베트남 중앙은행에 대한 적극적 감독연수 지원을 약속
 - * 금감원은 인도네시아 금융감독청과 직원 상호파견을 위한 합의각서를 체결 ('23.5월)하였고, 현재까지 양 기관은 총 5명의 직원을 장기 상호파견

- 이복현 원장은 11.14.(목), 홍콩에서 줄리아 룡(Julia Leung) 증권선물위원회 CEO 및 아더 유엔(Arthur Yuen) 금융관리국 부총재와 최고위급 면담을 실시하고 양국 금융감독 현안에 대한 의견을 교환

(1) 홍콩 증권선물위원회(SFC*) CEO 면담

* Securities and Futures Commission

- 양 수장은 양국 공매도 규제 취지·현황에 대해 심도 있게 의견을 교환하고, 향후에도 양자협력 및 국제증권감독기구(IOSCO)내 공조를 통해 자본시장 공정성 제고를 위해 상호협력하기로 합의

※ '24.5월부터 줄리아 룡 CEO는 IOSCO 산하의 역내 감독협력·공조 촉진을 위한 아태지역위원회의 의장직을 수행중

- 줄리아 룡 CEO는 공매도 가능종목 지정제도('02년 도입),* 호가 제한, 중개기관의 확인의무, 공매도 잔고 보고 등의 홍콩의 공매도 규제 운영경험을 상세히 공유하고,

* 시가총액, 회전율, 기초지수 구성종목 등 지정기준에 따라 공매도 가능 종목으로 지정된 종목에 대해서만 공매도 허용

- 글로벌IB 대상 한국의 불법 공매도 조사와 관련해 SFC의 협조 의사를 표명하고, 홍콩의 공매도 조사 기준 및 사례도 소개

- 이에 이복현 원장도 투자자보호 및 시장질서 확립을 위해 추진중인 공매도 중앙점검시스템(NSDS)* 구축, 기관·법인투자자의 내부통제기준 의무화, 공매도 통합 가이드라인 등 국내 제도개선 진행상황에 대해 설명하였음

* Naked Short-selling Detection System : 기관투자자의 기관내 잔고관리 시스템에서 산출되는 잔고·장외거래 정보를 보고받고 이를 한국거래소가 보유한 기관투자자의 모든 매매주문 내역과 대조함으로써 무차입 공매도를 3일 내에 전수점검

- 또한, 양 수장은 자본시장 경쟁력 제고를 위한 감독당국의 역할 및 그간의 노력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였고, 특히 줄리아 룡 CEO는 시장 유동성 및 효율성 개선을 위한 홍콩 당국의 다양한 조치를 소개

* 인지세 및 거래소 수수료 인하, 최소 매수-매도 호가 스프레드 하향 조정, IPO시 가격발견 프로세스 개선, 상장회사 유동주식 요건 재검토, 중국 본토 채권을 RMB 스왑거래 등 담보로 허용 등

(2) 홍콩 금융관리국(HKMA*) 부총재 면담

* Hong Kong Monetary Authority

- 美 대선 이후 글로벌 금융규제 추진 방향, 홍콩계 금융회사에 대한 상호 감독공조·정보교류 확대, 역내 주요국으로서 양국 금융당국의 역할 등에 대해 폭넓은 면담을 진행
 - 양 수장은 미국 新정부의 경제정책, 중국의 경기 상황 등 대외 불확실성이 증대하고 있는 만큼 양국 금융시장·산업에 대한 영향을 면밀히 분석·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진단하였고,
 - ※ 홍콩은 수출 및 수입 등 주요 경제지표의 중국 의존도가 높음. 또한 미달러화 연계 환율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, 美 연준 정책금리에 연동하여 기준금리를 조정
 - 美 대선 이후의 정책기조 변화 등으로 ESG·바젤Ⅲ 등 글로벌 금융규제 추진 동력이 현격히 저하될 가능성에 대해서는 우려를 표명
 - 특히, 기후공시와 관련하여서는 중소기업의 이행비용 등 고려해야 할 사항이 많지만, 국제기구 차원에서 기준을 정립한 만큼 장기적 시각에서 일관성 있게 추진*될 필요가 있다는 데 의견을 같이 함
 - * 홍콩 HKMA는 녹색분류체계(Taxonomy) 마련('24.5월), 지속가능성 공시 초안 발표('24.9월) 등 지속가능금융 관련 규제방안을 적극 추진 중
 - ※ 아더 유엔 부총재는 바젤위원회 정책기준그룹(PSG : Policy and Standards Group)의 공동 의장
 - 이에 따라 지속가능금융, 바젤Ⅲ 등 글로벌 감독과제의 일관성 있는 이행을 위해 '25.1분기에 감독협력 워크숍 개최를 상호추진하기로 합의하였고, 증권선물위원회 등 여타권역 홍콩 감독당국 과도 체계적 고위급·실무급 공조를 추진할 예정
- 한편, 양 수장은 최근 홍콩계 금융회사의 무차입공매도 등 국내 법규 위반사례와 관련하여, 효과적인 사후개선 및 사전방지를 위해 감독협의 채널 운영 등 상호소통 강화의 필요성에 공감
 - ※ 국내 진입 홍콩계 금융회사는 11개로 미국(38), 일본(18), 프랑스(15), 독일(12) 다음으로 많고, 특히 홍콩계 금융회사는 국내 자본시장에서 활발히 투자·거래하는 주요 시장 참여자임
- 또한, 이복현 원장은 최근 美 정책변화, 글로벌 지정학적 여건 등으로 글로벌 경제환경의 불확실성이 확대됨에 따라, 역내 금융안정성 유지 및 위험전이 방지를 위해 양 기관간 공동 대응의 중요성을 강조하였음

- 이복현 원장은 11.15.(금),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마헨드라 시레가(Mahendra Siregar) 금융감독청 청장과 '23.5월 인도네시아 방문에 이어 최고위급 면담을 다시 실시하여 각별한 우호관계를 재확인
- 이복현 원장은 국내 금융회사의 인도네시아 금융시장에 대한 높은 관심과 영업·투자 확대에 대한 의지를 전달하고 인니 금융감독청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요청하였음
 - 마헨드라 청장은 한국 금융회사들이 건전한 영업 및 금융혁신을 통해 양국 경제발전·교류에 더욱 기여하기를 바란다는 기대를 표명하고,
 - 특히, '23년에 최초로 시작된 금감원-인니 금융감독청간 장기 상호 파견 연수제도가 양국 금융감독·산업에 대한 이해도 제고 및 현지 당국과 금융회사간 원활한 소통에 크게 기여한 것으로 높이 평가함
 - 또한 국민은행 담당 금감원 실무자가 현지 자회사인 KBI(舊 부코판은행)에 대한 금감원의 감독현황을 인니 금융감독청 임원진 앞에서 직접 발표하여,
 - 국내 금융회사의 현지진출이 확대되는 가운데, 내부통제 및 리스크 관리 역량 강화를 통해 현지의 건전한 경영을 유도하려는 한국 금융당국의 감독의지를 전달하였음
 - 또한, 양 수장은 양국 당국 및 금융업계가 보다 긴밀히 소통하여 금융협력·교류를 촉진할 수 있도록 韓-인니 금융감독포럼(가칭)을 내년 상반기중 실시하기로 합의하는 등
 - 전년도에 양국 수교 50주년을 맞아 더욱 공고해진 금융협력을 계속 굳건히 하기로 뜻을 같이 하였음
 - 아울러 금번 최고위급 면담에는 박수덕 駐인도네시아 대한민국 대사대리도 동석하여, 금감원과 인도네시아 금융감독청간 돈독한 협력이 양국 금융산업 동반성장의 토대가 될 것임을 강조하였음

- 이복현 원장은 K-금융의 최전선을 개척하고 있는 현지 국내 금융회사 대표들과의 간담회를 베트남 하노이(11.11.) 및 인니 자카르타(11.15.)에서 실시
- 특히, 베트남 및 인도네시아는 성장 잠재력이 크고, 한국과 경제·기업 교류가 활발하여 국내 금융회사의 진출 수요가 높은 중요한 지역으로,
 - ※ 현지 진출 현황('24.6월) : (베트남) 40개 금융회사(53개 점포)
(인 니) 29개 금융회사(34개 점포)
 - 이복현 원장은 간담회를 통해 현지 금융시장의 생생한 상황 및 국내 금융회사의 영업현황, 애로 및 지원요청 사항을 경청하였음
 - 금감원은 현지 감독당국과 우호적 관계를 더욱 공고히 하며, 국내 금융회사의 영업 환경이 실질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일 계획으로,
 - 국내 금융회사 인허가 과정에서 국내 상황이나 특성 등을 현지 감독당국이 원활히 이해할 수 있도록 현지 당국과 긴밀한 소통을 지속
 - 또한, 인도네시아 현지 간담회는 아세안 권역내 금융협력 및 국내 금융회사 진출을 지원하는 韓-아세안 금융협력센터와 공동 주관하였고,
 - 앞으로도 아세안 권역내 국내 금융회사의 입지 강화를 위해 공동의 노력을 기울일 계획